

영어 '보다(see)'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와 의미의 상호관련성 연구*

김 미 자
(경희대학교)

1. 서론

생명 유지를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먹고, 보고, 말하는 동작을 꼽을 수 있다. 이 본능적 행동 가운데 시각적 행동을 묘사하는 '보다' 동사의 언어 표현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동작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반드시 두 개의 개체가 되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 기술하면 이 동작은 타동사 구문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다.

다음 (1)의 예문을 통해 '보다' 동사가 생성하는 전형적인 문장 형태는 이런 직관적인 예측을 넘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a)의 자동사 구문에 사용되기도 하고, (1b)-(1d)의 타동사 구문에서도 동작의 문맥적 의미가 다르게 읽히기도 하며, (1e)에서는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해석도 발견할 수 있다.

- (1) a. I thought I'd never see again with my left ey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269).

(COCA 2013 NEWS)

b. I saw a man in a white shirt and gray trousers.

(COCA 1992 NEWS)

c. He saw a doctor and was informed he had had a stroke.

(COCA 2005 SPOK)

d. Lee saw a magazine article about his lake house.

(COCA 1999 MAG)

e. He told me a year ago: "I saw in a dream that we were playing a soccer game against the Americans."

(COCA 2001 NEWS)

이런 본능적 행동을 묘사하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Hopper and Thompson (1980)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고, 주요 관심 대상은 영어의 먹는 동작과 마시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류의 의미실현 양상이었다. 이 동사류의 기본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까지 은유적 표현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연구였으며, 먹고 마시는 동사들이 보여주는 통사 의미적인 면들이 인간 보편적인 속성이고, 이런 특징은 인간 본능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가지는 공통된 속성일 것이며, 언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연구는 Masica (1976), Mittwoch (1982), Wierzbicka (1982), Rice (1988), Tenny (1994), Van Valin and Lapolla (1997), Saksena (1982), Nass (2007, 2011), Newman (2009)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인간 본능적인 행동 가운데 ‘보다’ 동사가 가지는 언어적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간 본능적 행동을 표현하는 다른 동사들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통사 의미적인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동사의 기본적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로의 확장이 단순한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확대 현상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형태 및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이 제약이 의미적 속성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구성으로, 다음 2절에서는 ‘보다’ 동사의 발음치에

나타난 실용례에 중심을 둔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3절에서는 '보다' 동사의 통사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다양한 의미확대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동사의 통사적 유형이 다양한 의미확대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적 속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보다' 동사의 통사적 유형과 의미 확대 현상을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시각으로 분석하여 이들 구문의 연관성 및 위계성을 고찰한다.

II. 연구 방법

'보다' 동사구문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 사용되는 자료와 분석방법을 이 부분에서 소개한다. 먼저 자료수집 및 분석에 사용된 코퍼스를 소개하고, 자료들의 추출 방법 및 통계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1.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보다' 동사 관련 자료는 영어의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추출하였으며, 이 COCA는 4억 5천개의 토큰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 자료에서 '보다(see)'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검색하였으며, 이 자료 가운데 무작위로 2,000개의 토큰을 추출하여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료에는 문어체와 구어체 문장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2. 자료 분석

말뭉치 자료에서 도출한 자료 분석은 먼저 자료 거르기 작업(filtering), 자료 분류(sorting), 분류된 자료의 유형 분석, 그리고 유형별 동사의 의미 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의 네 가지 절차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자료 거르기 작업 과정에서, 영어의 '보다' 동사가 실현된 문장 가운데 (2)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담화상의 어투는 보다 동사의 논항구조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즉, 영어의 ‘보다(see)’ 동사가 형성하는 구문의 유형을 조사해서 이 구문 유형이 의미적인 특징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므로, 일차적으로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된 문장 가운데 제거 대상이 되는 요소로 (2)의 대화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삽입구 표현이 대상이 되었다.

(2) Oh, **you see**, you're still using Kathie Lee again. Here's what we're going to do, put Hoda first. (COCA 2012 SPOK)

이 담화상의 어투 표현을 제외하고, 말뭉치 자료에서 도출한 2,000개의 ‘보다’ 동사가 실현되어 있는 문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의 문장 분석 과정에서, 주요 관찰대상으로 ‘보다’ 동사 구문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개체들의 속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고,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어 위치에 실현되는 요소를 이차적 관찰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를 분류해서 통사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기준으로 유형화된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별 ‘보다’ 동사의 의미적 확대 유형을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기술된다.

III. ‘보다’ 동사의 통사적 유형

1. ‘보다’ 동사의 통사 및 의미적 실현유형

영어의 ‘보다’ 동사가 형성하는 구문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영어 말뭉치 자료에서 도출한 이천개의 문장을 바탕으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통사적 실현 양상에 근거한 열세개의 다른 유형을 얻었다. 이는 다음의 도표에 요약하였다.

‘보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실현되는 타동사로 사용된 유형과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자동사로 사용된 유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말뭉치 자료에서 토큰을 비교해보면 타동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타동사 유형으로 사용된 문맥에서 보여지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개체는 크게 실제 가시적인 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와 가시적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고 추상적인 대상물을 지시하는 유형으로 세분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유형 분류는 다음 부분에서 기술된다.

〈도표 1〉 '보다' 동사의 통사실현 양상

동사 유형	대상물 (목적어위치)	통사 유형	의 미
타동사	가시화되는 개체	(1) NP(experiencer) + see + NP	(개체를) 보다
		(2) NP(experiencer) + see + S	(사건·상황을) 보다
		(3) NP + see + NP	(a) 감상하다
			(b) 만나다
			(c) 읽다
			(d) 진찰 및 상담하다
	(e) 돌보다		
	(4) NP + see + S or VP	알아차리다, 목격하다	
	(5) NP + see + NP(사람) + PP(to)	배웅하다	
	비가시적 추상적 대상물	(6) NP + see + NP	(a) 깨닫다
			(b) 예상하다
			(c) 얻다
		(7) NP + see + S	알아차리다
(8) NP + see + NP + PP(as)		생각 및 판단하다	
(9) NP + see + NP + PP(through)		보살피다	
(10) NP + see + PP(in) + S	꿈꾸다		
자동사		(11) NP + see + AdvP	보이다
		(12) NP + see + to it + S	확인하다
		(13) NP + V + and see	고정함축

2.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

먼저,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쉽게 예측되는 유형으로, ‘보다’ 동사가 형성하는 가장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 유형이 있다. 이때 (3)-(4)와 같이, ‘보다’ 동작의 수행 의도는 실제로 가시적인 대상을 보게 되는 것으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개체(entity)는 경험자(experiencer)의 의미역(thematic role)을 수행하게 된다. 목적어 위치에 발생하는 대상물은 시각적으로 포착되는 개체 또는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표현으로 (3)의 명사구와 (4)의 동사구(한정 동사구 또는 비한정 동사구 모두 포함)가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경험자가 특정한 개체를 가시적으로 목격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의 경험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유형 1: 주어(경험자역) + *see* + 목적어(명사구)
 b. 문맥: 주어가 가시화되는 개체를 보게 되는 상황
 c. I saw a man in a white shirt and gray trousers kneeling on a small rug, his shoes beside him. (COCA 1992 NEWS)
- (4) a. 유형 2: 주어(경험자역) + *see* + 목적어(비한정 동사구 또는 절: nonfinite VP or clause)
 b. 문맥: 주어가 가시화되는 사건 또는 상황을 보는 문맥
 c. At that moment Mei saw her mother pushing through the crowd with two bottle gourds. (COCA 2009 FIC)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위에 기술한 유형과의 큰 차이점은 ‘보다’ 동작을 행하는 목적에 있다. 이 유형은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대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보게 되는 대상물이다. 이로 인해 이 유형의 주어에는 유형 1과 2의 경우와 동일한 경험자 의미 역할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어에 나타난 개체의 의지가 있어야 목적이 수행되는 특징이 관찰된다.

이 유형의 상세한 의미를 다음 (5)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6)에 나타난 것처럼 부수적으로 보게 되는 대상물이 영화나 경기 등의 오락을 위

한 것이라면, 감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부수 대상물이 사람일 경우에도 만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며, 시, 소설 및 신문 등의 부수적 대상물을 읽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를 보거나 변호사 등의 특정한 상황에 있는 대상물을 보게 되는 경우는 진찰이나 상담하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자 및 아이와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물의 경우에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통해 돌보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5) 유형 3: 주어 + see + 목적어(명사구)

- a) 대상물: 영화, 경기 등 (감상하다)
- b) 대상물: 사람 등 (만나다)
- c) 대상물: 시, 소설 등 (읽다)
- d) 대상물: 환자, 변호사 등 (진찰 및 상담하다)
- e) 대상물: 손자, 아이 등 (돌보다)

(6) 의미 1: '감상하다'

- a. He points out again and again that Gil Stein never saw a hockey game until he was 39 years old. (COCA 1993 MAG)
- b. Pattinson just saw the first movie for the first time ever. (COCA 2010 NEWS)

의미 2: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해서 진찰 또는 상담을 받다'

- a. He saw a doctor and was informed he had had a stroke. (COCA 2005 SPOK)
- b. I believe he went and saw his lawyer the next year, a very fine criminal attorney in the city of Oakland. (COCA 2006 SPOK)

의미 3: '만나다'

- a. During the break, Mikhail Lvovich saw a professor he knew. (COCA 1999 FIC)
- b. The work supported him and his sister, but she saw her children only on weekends. (COCA 1997 NEWS)
- c. We saw a lot of each other until a few years ago. (COCA 2008 FIC)

의미 4: '읽다'

- a. He saw the newspaper headlines. (COCA 2010 FIC)
- b. Lee saw a magazine article about his lake house. (COCA 1999 MAG)

의미 5: ‘돌보다’

- a. I saw my child until he was 16 months old. (COCA 1997 SPOK)

네 번째 유형은 주어에 위치하는 개체물이 경험자 의미역할이 부여되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도출해 내는 상황으로 알아차리다 또는 인식하다는 의미를 전한다.

- (7) 유형 4: 주어 + see + 목적어(동사구 또는 절) ‘알아차리다, 목격했다’
 - a. As they galloped closer, Lucian saw them to be men and women dressed alike in fringed tunics and trousers of soft leather. (COCA 1995 FIC)
 - b. "The girls saw two men pull him into an automobile and drive away," said the main policeman, who had in the meantime emerged from the bar." (COCA 2005 FIC)

다섯 번째 유형은 가시화되는 대상의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구가 나타나고 이어서 전치사 *to*가 형성하는 전치사구가 결합해서 형성되는 유형이다. 이때 전치사구는 장소를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동사는 배웅하다 또는 바래다 주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 (8) 유형 5: 주어 + see + 목적어(사람 명사구) + 전치사구(*to*)
의미: ‘배웅하다, 바래다주다’
 - a. Falworth saw her to the door of his office, a gesture she guessed he didn't ordinarily make with visitors. (COCA 2001 FIC)
 - b. We saw him to the door and stood watching him drive away. (COCA 2007 MAG)

이상에서 관찰된 다섯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영어의 '보다' 동사의 대상물이 되는 개체나 사건이 실제 주어 위치에 있는 개체의 시야에 나타난 대상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 주어의 시야에 실제로 나타나 있지 않은 개체나 사건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유형들을 분류했다.

가시화 되지 않은 추상적 대상물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유형으로 명사구가 실현되었을 때 다음 (9)의 3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알아차리다, 예상 및 예측하다, 마지막으로 해답을 구하거나 얻는 의미가 있다. (10)에서는 목적어 명사구를 대신해,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절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를 분류했는데, 이때 의미는 어떤 상황을 깨달았거나 인식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9) 유형 6: 주어 + see + 목적어(추상적 대상물) 명사구

의미 1: '깨닫다, 알아차리다'

- a. Ridley saw the doubt in his eyes and became very serious. (COCA 2009 FIC)
- b. They saw the need to establish new collaborations within their offices, as well as in their won communities, to serve struggling immigrant families with compassionate, effective services (COCA 2008 ACAD)

의미 2: '예상하다'

- a. They saw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COCA 1997 SPOK)
- b. Rich Nadler and Jeffrey Henning saw the future of market research in Web-based surveys and started Perseus in 1994 to develop software to handle the surveys. (COCA 2004 MAG)

의미 3: (해답 등을) '얻다'

- a. In 1887 a biochemistry professor Donald Comb saw a chance to sell a new enzyme known as Taq DNA polymerase. (COCA 1991 MAG)
- b. When he looked more closely at the missiles he saw the

answer to two puzzles. (COCA 1997 FIC)

(10) 유형 7: 주어 + see + 목적어 절 ‘깨닫다’

- a. Irritation turned into annoyance when I opened the front door and saw that her car was no longer there. (COCA 2012 FIC)
- b. He was not asked to enter but saw at once that it was unnecessary. (COCA 1998 NEWS)

다음의 유형에서는 목적어 명사구 다음에 전치사구가 실현되는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전치사는 'as, through, in'의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이들 전치사가 사용됨으로써 의미의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11)의 as가 사용된 문맥에서 ‘보다’ 동사는 생각하거나 판단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서, ‘그 캠페인을 시장점유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을 얻게 된다.

(11) 유형 8: 주어 + see + 목적어 명사구 + 전치사구(as) ‘생각 및 판단하다’

- a. Steve had hired me because he saw the campaign as a fight for market share and wanted a business speech writer down the stretch. (COCA 1992 NEWS)
- b. The Poles, of course, saw the war as an opportunity to resurrect the Polish state. (COCA 1996 ACAD)

동일한 전치사구이지만, (12)의 전치사 through와 결합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13)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가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치사 through가 결합하는 논항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어려운 또는 힘든 상황 하에 있는 어떤 대상물(12의 경우는 George)을 회복될 때까지 함께 지켜본다는 의미이므로, 이 유형에 사용된 ‘보다’ 동사는 ‘돌보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2) 유형 9: 주어 + see + 목적어 명사구 + 전치사구(through) ‘보살피다’

- a. In the course of twelve years, I saw George through clinics

- and wards, support groups and marches. (COCA 1997 FIC)
- b. He saw his friend through painful surgery and a long convalescence, then persuaded him to stay on at the boardinghouse as manager. (COCA 2008 FIC)

- (13) The ambulance rear door was slammed shut, but he could still see her face through the window as the vehicle began pulling away. (COCA 2007 FIC)

전치사 *in*이 사용되는 경우로 (14)의 유형을 별도로 분류한 것은 전치사구로 특히 *in a dream*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는 다른 의미를 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4a)에서 '보았다' 동사가 *in a dream*과 결합해서 '꿈꾸었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고, 이는 실제 보는 동작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한 통사적인 패턴이 발생하는지를 검색해 보았는데, (14b)와 같은 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14b)는 전치사구가 의무적으로 이 위치에 나타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전치사구는 문미에도 자유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도 하지만, 의미적인 차이점은 정보패키지의 화용론적인 문맥에 있다고 판단된다.

- (14) 유형 10: 주어 + *see* + 전치사구(*in*) + 목적어 절 '꿈꾸다'

- a. He told me a year ago: "I saw in a dream that we were playing a soccer game against the Americans." (COCA 2001 NEWS)
- b. Godfrey saw in the newspaper that the temperature in New York was in the 40s, so he caught the next plane home. (COCA 1998 MAG)

이상의 열 가지 통사적인 유형은 '보다' 동사가 타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를 분류했다. 다음에 기술하는 유형은 '보다' 동사가 자동사처럼 사용되는 예문들을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한 것이다. (15)의 유형의 '보다' 동사는 특정한 대상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나, 보

는 대상물을 피하는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요소는 *well*이나 *straight*와 같은 부사 수식어구가 위치한다.

(15) 유형 11: 주어 + *see* + 부사구

- a. I don't see well without my glasses.
- b. Bitts said, "I just can't see well enough to make it out."
(COCA 2011 FIC)
- c. I was so mad I couldn't see straight, and he won the race.
(COCA 2005 SPOK)

타동사와 자동사 유형으로 사용된 ‘보다’ 동사 이외에 말뭉치에서 도출된 유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구문이 검색되었다. (16)의 ‘보다’ 동사가 전치사구 *to it*과 *that* 절과 결합하여 실제 보는 동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를 표현한다. 어떤 내용을 확실히 하라는 상황을 전한다. 이 표현은 (16c)처럼 명령 문에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유형 12: 주어 + *see* + *to it* + *that* 절

- a. He wants you to see to it that there is no fallout for GBI.
(COCA 2010 FIC)
- b. And one of my primary obligations is to see to it that the taxpayer dollars are returned to the U.S Treasury. (COCA 2009 NEWS)
- c. See to it that we are not disturbed. (COCA 2011 FIC)

다음에 볼 수 있는 유형도 이미 주어와 동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구문에 영어 표현 *and see*가 추가되어 있는 구문인데, 이때의 ‘보다’ 동사의 동작이 실제로 행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든 유형이다. (17a)의 문장은 동사 *understand* 다음 위치에 *and see*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근거는 *see* 다음에 위치한 명사구 표현 *the need*가 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로 판단되는데 있다. (17b)-(17d) 문장도 첫 번째 위치

한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보다' 동사 다음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7) 유형 13: 주어 + 동사 + *and see*

- a.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I really understand and see the need for the writers to use their voice and speak up. (COCA 2007 SPOK)
- b. As it is, most bolts are located in very isolated places in the Flatirons that only climbers use and see. (COCA 1990 MAG)
- c. We take pride in our cuisine. We have the best food in the world, he said. Can't beat our cookin'. Go anywhere and eat and see for yourself. (COCA 2004 NEWS)
- d. Students read and see the bad news about layoffs and employment. (COCA 2003 NEWS)

IV. '보다' 동사 구문의 통사와 의미의 상호 작용

1. '보다' 동사 구문의 특성

지금까지 분류한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에서 발견되는 이 구문의 독특한 특징으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위의 3.2에 제시된 도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동사의 주어로 실현되는 개체는 두 가지 다른 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서 발견되는 경험자(experiencer)의 의미역할(thematic role)을 수행하는 것과 그 외의 유형에서 보여지는 행위자(agent)의 의미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통사적인 특성으로 규명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보다' 동사는 경험자의 의미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구문적인 제약이 있다고 특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외의 유형은 '보다' 동사를 수행하려는 주어에 나타난 개체의 의도 및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구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보다' 동사 구문이 형성하는 외치현상(extraposition)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전형적인 평서문에서 동사와 목적어 명사구 사이에는 부사수식어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는 위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18)의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미에 위치되어야 할 전치사구가 동사 다음에 나타나있다. 이는 위치현상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목적어 자리의 명사구가 문미의 위치로 위치 이동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문이다.

- (18) a. When Zach brought his business into the area, I saw in him a rare gift, one that comes along seldom in this life. (COCA 2009 FIC)
- b. I see in my mind the dead bodies lying on the battlefields, and I hear their voices saying, "Why did I die? Why is my life cut short. What will happen to my wife, or my children? (COCA 1990 MAG)
- c. They see in him a worker for a state agency with a terrible reputation. (COCA 1993 NEWS)
- d. They see in him a man of great talent and ability combined with a deep humility and modesty (COCA 1993 MAG)

다음은 삽입어구(parenthetical expressions)로써의 ‘보다’ 동사의 기능적인 특징이 있다. 동사 다음에 접속사 *and*와 함께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17) 유형의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에 재인용해 보면, 이 삽입어구 기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19a)에서 ‘보다’ 동사 다음에 위치한 요소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목적어 위치에 나타난 *the need*는 보는 대상물 이라기보다는 앞선 동사 *understand*의 대상물이라고 판단되며, (19b)에서도 *the bad news*는 동사 *see*의 대상물보다는 *read*의 대상물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에 근거하여 접속사 *and*와 동사 *see*는 삽입어구의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기능으로 ‘보다’ 동사는 의미화용론 측면에서 제시되는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함축의 의미는 H. P Grice가 제시한 용어로 주어진 상황에서 발화되는 표현들의 의미

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발화 표현들에 대해 진리 조건적 (truth conditional meaning) 의미가 산출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진리 조건적 의미 도출에 반영되지 않지만 표현에서 도출되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19) a.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I really understand **and see** the need for the writers to use their voice and speak up. (COCA 2007 SPOK)
- b. Students read **and see** the bad news about layoffs and employment and translate that into 'I'm not going to get a job.' (COCA 2003 NEWS)
- c. For principals not to listen **and see** the voices of students and teachers is to deny students and teachers their right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ir own experiences, history, and biographies.(COCA 1991 ACAD)
- d. Asa Hutchinson, talking about Vernon Jordan, is at the microphones now. We'd like to listen **and see** what he's saying. (COCA 1999 SPOK)
- e. What is that marvelous smell, I wonder? I must go **and see**. (COCA 2004 FIC)

고정함축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COCA에서 별도로 이 표현을 검색하여 (19)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and see* 표현을 추출하였으며, 이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의 토큰(token)의 빈도수 (frequency)를 산출하여 다음 도표 2의 결과를 얻었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표현들이 주로 *wait and see*, *come and see*, *go and see* 등 이었다.

<도표 2> 삽입어구로써의 '보다' 동사 현황

1	WAIT AND SEE	242
2	COME AND SEE	124
3	GO AND SEE	66

4	LOOK AND SEE	42
5	HEAR AND SEE	28
6	WATCH AND SEE	21
7	TURN AND SEE	17
8	TRY AND SEE	13
9	CHECK AND SEE	13
10	STOP AND SEE	8
11	FEEL AND SEE	8
12	READ AND SEE	7
13	KNOW AND SEE	4
14	RETURN AND SEE	3
15	EAT AND SEE	2
16	MEET AND SEE	2
17	SAY AND SEE	2
18	USE AND SEE	1
19	UNDERSTAND AND SEE	1
20	TRAIN AND SEE	1
21	SMELL AND SEE	1

2. ‘보다’ 동사 구문의 통사 및 의미의 상호 관련성

1) ‘보다’ 동사 구문의 통사 및 의미 관련성

Hopper and Thompson(1980)에서 시작되는 영어의 ‘먹는 동작(eating)’과 ‘마시는 동작(drinking)’을 표현하는 동사류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주장은 이 동사류는 순수하게 무엇인가 섭취하거나 마시는 행동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심지어는 부정적인 ‘욕을 먹다’ 등이나, 긍정 의미를 표현하는 기쁨의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확대된 어휘의미(extended lexical meaning)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a)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b)는 소중한 말씀을 새겼다는 의미를 지닌 구문이고, (c)에서의 자동사 문장은 금속 성분을 부식시키는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20) a. I pace the earth, and drink the air, and feel the sun.

(Housman 1896, Newman 2009 재인용)

b. He ate and drank the precious Words. (Johnson 1890,

www.kci.go.kr

Newman 2009 재인용)

c. The acid ate into the metal. (Newman 2009)

본 연구에서는 인간 본능적 행동 중의 하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보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다'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까지를 비교하여 이런 의미의 확장이 단순하게 어휘적인 의미 확장이 아니라, 특정한 통사 구문이 표현하게 되는 구문론적 의미가 도출되기 때문인지를 확인해보는 의미와 통사적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 관찰은 C. Fillmore에서 비롯되어 전개되어 온 A. Goldberg의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적 시각으로 이루어졌다. 이 구문문법의 주된 시각은 한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논항 요소로서의 기능은 어휘 동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구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휘 동사 *cook*이 결합할 논항 구조가 전적으로 *cook*에 의해서만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Goldberg(2003)의 자료에서 제시된 (21)의 예문에서 보듯이, 여섯 가지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결합방식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a)의 자동사 구조에서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어 대상물이 명시되지 않는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어 Pat이 요리한다는 정보를 주게 되고, (b)는 기동동사로 사용되게 되고, (c)는 순수하게 타동사 구문에서, (d)는 결과 구문에, (e)는 수여동사로 요리해 주었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며, 마지막 (e)에서는 'the way' 구문에서 사용되어, 요리를 해서 일리노이 주에서 개최하는 요리대회에 입상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휘 동사 *cook*의 의미는 (21)의 여섯 가지 결합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에 나타나느냐에 달라진다는 것이다.

- (21) a. Pat cooks. (deprofiled object)
- b. The chicken cooked all night. (intransitive inchoative)
- c. Pat cooked the steaks. (transitive)
- d. Pat cooked the steak well-done. (resultative)
- e. Pat cooked Chris some dinner. (ditransitive)
- f. Pat cooked her way into the Illinois State bake-off. (way)

construction)

이런 시각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 ‘보다’ 동사의 통사적 실현 양상에서의 의미와의 상관 관련성을 검토한다. 먼저 ‘보다’ 동사의 의미 확대는 ‘먹다’ 동사의 긍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까지 도출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위의 3장에서 관찰된 ‘보다’ 동사 구문의 유형에서 도출된 의미를 검토해 보면, 한 문장에서 사용된 ‘보다’ 동사는 시각적인 대상물을 보는 행동에서 출발해, 의미적 기여를 거의 하지 않는 고정함축의 의미까지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의 확대 과정을 본 논문에서는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 과정에 통사적인 제약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보다’ 동사 구문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는 특정한 경험자가 가시적인 어떤 것을 보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때 가시적인 대상물은 특정한 개체이거나 특정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전형적으로 (22)의 통사적인 구조 하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적 확대를 설정하면, 이런 구조 내에서 ‘보다’ 동사의 의미확대 범위는 주어의 위치에 있는 개체가 경험자에서 행위자가 위치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가시적인 대상물을 보는 사건을 기술하게 되는데, 이때 ‘보는 행동’이 주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목적이 된다. 다른 목적을 위해 가시적 대상물을 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22b)의 구문을 형성한다. 여기에 전치사구(*to*)가 추가되어 배움하다는 의미로의 확장을 나타낸다.

- (22) a. NP (experiencer) + see + NP/ S
 b. NP (agent) + see + NP/ S
 c. NP + see + NP + PP(*to*)

세 번째 의미확장 단계를 설정하면, 행위자의 의미역할을 하는 명사 개체가 목적어 위치에 나타난 가시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대상물과 결합하여, 어떤 내용이나 어떤 개체를 ‘알아차리다, 깨닫다, 예상하다, 얻다, 보살피다, 꿈꾸다’와 같은 의미해석을 ‘보다’ 동사가 생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보

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기능이 소실된 의미로 확대되었다. 보는 기능이 소실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인 (23a) 이외에도 (23b)의 전치사(as, through, in)의 구문의 형태를 주로 형성하였다.

- (23) a. NP + see + NP/ S
 b. NP + see + NP + PP(as, through, in)

마지막 확대 단계인 '보다' 동사의 의미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환경은 (24)의 통사적 구조 형태이다. (24b)는 삽입어구 성격을 보이고 있어서 고정함축의 의미로 판단되는 문장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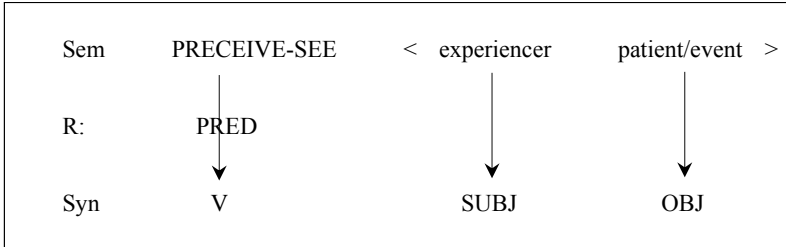
- (24) a. NP + see + to it that
 b. NP + verb + and see

이상에서 '보다' 동사의 의미 확대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순수하게 보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보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을 형성하는 단계, 실제 가시적으로 보는 대상물이 없는 단계, 보는 기능의 의미를 전혀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 마지막으로 보는 동작과 무관한 단계로 임의적으로 의미 확대 현상을 분류하였다. 이 의미 확대 과정에 통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며, 가장 전형적인 문장 구조에서 전치사구 등의 요소가 추가되는 구문 유형을 관찰하였다.

2) '보다' 동사 구문의 통사 및 의미의 상호관련성 위계

위의 부분에서 구분해 본 '보다' 동사 구문의 확대된 의미가 전개되는 통사적인 구문 유형을 구문문법 이론 체계 내에서 상호관련성의 위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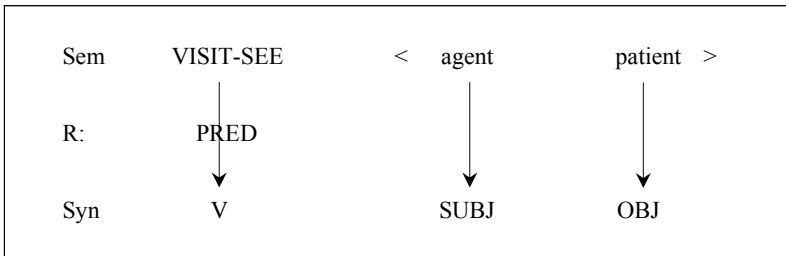
(25) 타동사 구문에서 실현된 ‘보다’ 동사 구문: 전형적 유형 I



위의 (25)처럼 일반 타동사 구문의 속성을 부여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타동사 구문의 하위유형이 되며, 인지동사들이 보유하는 주어의 경험자 의미역할을 수행하는 구문형태에 ‘보다’ 동사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속하게 된다.

이 전형적 ‘보다’ 동사가 속해 있는 유형에서, 가장 인접한 확장 의미를 표현하는 유형은 (26)의 일반 타동사 구문 유형인 행위자(agent) 역할의 주어와 피험자(patient) 의미역할의 목적어로 구성되는 구문에 ‘보다’ 동사가 사용되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상물을 방문하는 동작을 수행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보는 행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동작의 의미를 도출하는 구문 유형을 형성한다. 즉, ‘보다’ 동사의 전형적 구문 유형에서 확대된 의미를 갖는 구문은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에 사용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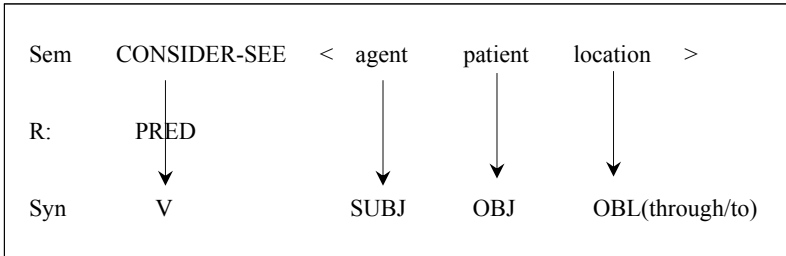
(26) 확대된 유형 II: 방문 목적



의미 확대 세 번째 유형의 구문은 행위자의 주어와 피험자의 목적어 다음 위치에 장소 의미역할의 전치사가 위치하는 구문에 ‘보다’ 동사가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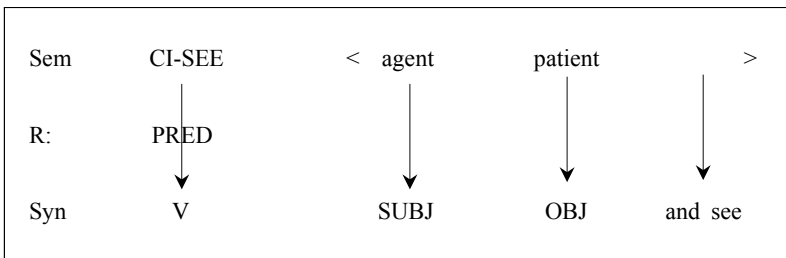
(27)의 경우로, '보다' 동작의 기능이 소실된 의미유형을 형성한다. 이때는 구문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험자(patient)의 의미역할을 가진 목적어가 전치사 다음에 명시된 장소에 위치해 있거나 그곳으로 이동하는 의미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보다' 동작의 목적이 완전 소실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7) 확대된 유형 III:



마지막으로 '보다' 동사가 형성하는 의미 확장 유형에서는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의 기능을 하는 표현들이 형성하는 구문 유형의 제약을 이어 받아, '보다' 동사의 의미 표현은 아무런 진리조건적 의미값을 형성하지 못하는 (28)의 구문유형이 도출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의미확대 유형은 세부적으로 하위 유형의 구문을 더 형성할 수 있다.

(28) 확대된 유형 IV:



V. 결론

본 논문은 인간 본능적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들에서 보이는 의미 확대 현상에 중심을 두면서 ‘보다’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 확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통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의 말뭉치 활용도구로 COCA를 이용하였으며, COCA에서 도출된 자료 가운데 무작위로 이천 개의 ‘보다’ 동사 문장을 선별하였다. 이 문장을 통해 ‘보다’ 동사가 형성하는 문장을 통사적 구조에 근거해 열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에서 ‘보다’ 동사의 의미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한 통사적 구문 하에서 확장 되는 의미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보다’ 동사의 의미 확대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순수하게 보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보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을 형성하는 단계, 실제 가지적으로 보는 대상물이 없는 단계, 보는 기능의 의미를 전혀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 마지막으로 보는 동작과 무관한 단계로 임의적으로 의미확대 현상을 분류하였다. 이 의미 확대 과정에 통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며, 가장 전형적인 문장 구조에서 전치사구 등의 요소가 추가되는 구문 유형을 관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동사의 의미 확대 과정에 통사적인 구문 속성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통사 및 의미적 상호관련성을 A. Goldberg가 제시하는 구문문법의 이론적인 체계 내에서 형식화하여, 네 단계의 의미 확장 과정에 형성되는 각 구문은 ‘보다’ 동사가 형성하는 구문은 각각의 상위 동사유형의 구문에서 영향을 받아, 그 특정 구문에 나타나면 각각 그 유형의 속성에 ‘보다’ 동사의 속성이 결합하여 ‘보다’ 동사만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보다’ 동사의 위계성을 ‘보다’ 동사 유형 구문들간의 네 단계의 상호 위계적 관련성도 도출하였다.

❖ 참고 문헌

- CRUSE, Andrew,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DEIGNAN, Alice, "Linguistic metaphors and collocation in non-literary corpus data," *Metaphor and Symbol* 14, 1999.
- GOOSSENS, Louis, "Metaphonymy: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figurative expressions for linguistic action," Goossens, L., Pauwels, P., Rudzka-Ostyn, B., Simon-Vanden-bergen, A.-M., Vanparrys, J. (Eds.), *By Word of Mouth: Metaphor, Metonymy and Linguistic Action in a Cognitive Context*. John Benjamins, Amsterdam, 1995.
- GRIMSHAW, Jane,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0.
-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1980.
- KATZ, Jerrold J., *Compositionality, Idiomaticity, and Lexical substitution*.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ed. by Stephen R. Anderson and Paul Kiparsky, New York, 1973.
- KIM, Eugene and LEE, Hae-Yun, "The semantic extensions of Korean verbs of percep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IV, 2011.
- MITTWOCH, Anita, "On the difference between eating and eating something," *Linguistic Inquiry* 13, 1982.
- NÆSS, Åshild, *Prototypical transitivity*. Amsterdam: John Benjamins, 2007.
- NEWMAN, John, (ed.) "A cross-linguistics overview of 'eat' and 'drink,'" *The Linguistics of Eating and Drinking.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84, ed. by John Newman 1-26, Amsterdam: John Benjamins, 2009.
- POTTS, Christopher, "Expressive Content as Conventional Implicature," Kadowaki M. and Kawahara S. (eds).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s Society* 33. Amherst, MA: GLSA, 2003.
- _____,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A*

-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England: Longman, Essex, 1985.
- RICE, Sally, "Unlikely lexical entries," *Proceedings of the 1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02-12*, Berkeley: BLS, 1988.
- _____, "Athapaskan eating and drinking verbs and constructions," *The Linguistics of Eating and Drinking*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84]. ed. by John Newman, 109-52, Amsterdam: John Benjamins, 2009.
- STEFANOWITSCH, Anatol, "A corpus-based approach to the function of metaphor,"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0, 2005.
- TOGNINI-BONELLI, Elena, *Corpus Linguistics at Work*. John Benjamins, Amsterdam, 2001.
- VANHOVE, Martine, "Semantic associations between sensory modalities, prehension and mental perceptio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From Polysemy to Semantic Change: Towards a Typology of Lexical Semantic Association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8.
- VIBERG, Ake, "The verbs of perception," *Linguistics* 21, 1984.
- WIERZBICKA, Anna, "All people eat and drink. Does this mean that 'eat' and 'drink' are universal human concepts?," *The Linguistics of Eating and Drinking.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84, Amsterdam: John Benjamins, 2009.
- _____, "Why can you have a drink when you can't have an eat?," *Language* 58, 1982.

❖ ABSTRACT

On the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in See Verb Construction in English

Kim, Mija

The major goals of this paper are to identify the degree into which the meanings of 'see' verb can be extended, focusing on the extended meanings shown in the expressions that denote our instinctive actions for survival, such as eating or drinking, etc., and to clarify the doubt on whether any syntactic pattern can be associated with the meaning in the process of meaning extension of 'see' verb. For doing this task, this paper picked out 2,000 examples randomly from COCA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in which the verb 'see' is used. This paper classified the sentences into thirteen different sentence types, according to the syntactic pattern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se thirteen syntactic types lead us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the meaning extension of the verb 'see'.

With this result, this paper made an attempt to provide the four steps toward the meaning extension of verb 'see'. The verb 'see' in the first step denotes the meaning of purely seeing the visualized objects. This verb in the second step expresses the shifted function, under which the agent in the subject position takes the seeing action as a secondary task in order to carry out other main task. The verb in the third step denotes the extended meanings irrelevant to the seeing action, because the sentences on this step do not contain any visualized objects. In the last step this verb functions as conventional implicature whose meaning does not contribute to the whole meaning of a sentence. In addition,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 syntactic properties are deeply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meaning extension of the verb 'see', and tried to formalize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syntax and semantics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ruction Grammar based on A. Goldberg.

Key Words

영어 보다 동사, 의미 확대, 유형화, 통사 의미 관련성

English seeing verb, meaning extension, types, interrelation in syntax and

354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 6.)

semantics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04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